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 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우 컬럼

공짜 좋아하지 마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은 '공짜 술'이라고 하고, '공짜라면 양껏물도 마신다.'는 말도 있다. 공짜를 좋아하는 심리가 반영된 말들이다. 사람들은 공짜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러나 70을 넘게 살면서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공짜는 쥐뿔에나 있다. 인터넷이나 신문에 '무료'라면서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진짜 공짜던가? 대개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다. 그것은 미끼요, 함정이다. 하나님은 공짜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쉽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셨다. 그분에게 불가능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외동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할 말이 없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무덤을 그냥 쓰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하고 무덤을 샀다. 솔로몬도 일천번제를 드려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를 얻었다.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후, 하나님이 갓을 통해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다. 다윗이 이에 순종하여 아라우나의 집에 당도하니 아라우나가 황송하여 번제에 쓸 모든 것을 그냥 쓰라고 한다. 그러나 다윗은 '값없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값을 치른다. 당연하다. 모든 것은 반드시 대가, 곧 값을 치려야 한다. 그것이 공의다.

공짜와 요행이란 유혹은 나를 불행으로 이끄는 마귀 전략이다. 공짜나 바라는 무능한 자로, 게으른 자로 만들기 위한 마귀의 꾀체인 것이다. 그래서 불토소득이나 바라는 자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신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3:8-10).

공짜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날린 결정타는 무엇일까?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는 화두는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등 각 방면에서 두루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진실로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결정타가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다윗과 골리앗 사건의 영적 비밀에 대해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자세히 가르치셨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다는 거죠. 이 사건에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조롱하는 골리앗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 다윗은 온 이스라엘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를 헤집고 오직 막대기와 돌멩이만 들고 당당히 골리앗 앞으로 나갔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기탱천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관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삼상17:26). 형들은 어린 것이 뿔도 모르고 까분다고 나무랐지만, 이 말은 사울 왕에게 보고가 되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부르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

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삼상 17:45).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다윗의 말을 듣고 속이 시원하셨을 겁니다. 나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피가 뜨거워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골리앗도, 그 어떤 문제도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난 36년간 목회하면서 술한 문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수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붙잡은 그 이를 예수, 낯설고 물 설은 이국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역시 내가 강하고 담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열다섯 살된 소년,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결정타가 무엇이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나?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 다윗의 말, 그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뱉은 믿음의 말에 주목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갑자기 등장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존재는 온 이스라엘군대에게 공포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오게 된 소년 다윗이 있었습니다. 비록 양치는 목동이었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배달하러온 처지였지만, 다윗에 귀에 들린 골리앗의 말이 그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리이다'(삼상17:32). 사울 왕은 '넌 골리앗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다윗은 더욱 의분에 차서 '사자와 곰과도 싸우며 내 양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 가운데서도 지키셨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 없는 골리앗 정도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자 사울 왕도 다윗의 믿음에 압도되어 허락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막대기와 다섯 개의 돌멩이를 들고 나오는 소년 다윗을 보고 골리앗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고 더욱 조롱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명언, 내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날린 결정타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침륜에 빠져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잃었기 때문이요, 하나님 군대의 야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고 침노하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명령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결정타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 대면예배 실시)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삼상16:7~13)



토키장이 원망 말고 너 자신을 발전시켜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창1:26).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당신의 형상대로, 쓰임에 맞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씩뚯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잠16:4).

그것은 마치 토키장이 토키를 만들 때와 같습니다. 목회 전에 이전으로 도자기를 만들려 다닌 적이 있는데요. 그때 초보인 저도 ‘무엇을 만들겠다,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흙을 적당히 떼어 물레에 돌려 쓰임새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토키장이요, 우리는 그가 빚은 토키라고 비유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키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사64:8). 토키장자들은 자기가 만든 토키를 자신의 분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만드신 우리를 분신, 곧 자식이라 하시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든 하나님께 불만이 많습니다. 이는 토키가 토키장자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격으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다리도 긴데 나는 왜 이리 짧게 만들었나?’,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한번만 배우면 척척 다 아는데 나는 왜 새끼리인가?’, ‘저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데 나는 왜 뽕손?’ 등등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많았는지 성경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키장이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롬9:20~21).

고래는 바다가 제일이고 호랑이는 산에서 으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적합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당신이 남의 것만 바라보고 부러워하느라 정작 자신의 적성,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천직을 찾지 못했기에 당신 삶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성공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빚으셔서가 아니라 일찍이 자기 적성을 찾고, 그것을 살려 그 우물을 깊이 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대충, 잘못 만들어서 당신이 성공 못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적성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

았기 때문이고, 또 그것을 하찮게 여겨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겸손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지혜를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잘 발전시켜 나갔더라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도 받지 않았을 테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의 것만 바라봤습니다. 다윗의 용맹함과 자신을 늘 비교했고, 다윗의 것을 탐했습니다. 이는 탐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고로 지나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



총회장 이초석 목사

망에 이르는 법(약1:15), 토키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토키를 아껴보지 않고 망치로 깨버리듯,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을 깨트리셨습니다. “나 여호와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키장이의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키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렘18:6).

여러분, 똑배기가 ‘나도 저 항아리가 되어 많은 걸 담고 싶다.’ 해서 항아리 분량의 물을 똑배기에 부어준다고 해도 똑배기는 자기 분량 이상을 담을 수 없습니다. 괜히 물이 넘쳐 주변을 물바다로 만들 뿐. 의사, 판사가 좋다고 다 그 직종만 하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분량이 안 되는 사람은 이루지도 못할 그 공부하느라 죽어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

성공한다는 것은 자기의 분량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지 남과 겨루어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곳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잘 만지면 꽃 박사가 되면 성공한 것이고, 음식에 일가견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식당을 하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요리사보다 판사가 낫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려야 나도 행복하고 이 사회도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70이 넘게 살아보니까 감나무가 사과나무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 안 됩니다. 접붙임 을 해도

감 나

무 가 사 과 나

무가 온전히 될 수 없고, 수을 해도 완전하게 남

자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 토키장이인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괜히 뱀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니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이고, 송충이는 갈잎을 먹으니까 배탈이 나는 겁니다. 운명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뱀새로 태어났으면 뱀새로 멋지게 살면 되는 겁니다. 황새가 뱀새보다 더 행복하다고 누가 말합니까? 큰 그릇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금 그릇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종지라도 내 것에 만족하고 깨끗할 때 매일 주인 밥상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자동차에도 핸들과 타이어, 백미러, 다 그 기능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눈과 코, 귀, 입, 팔, 다리, 모두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대통령일 수 없고, 다 사장일 수 없고, 다 목사일 수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

면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술습득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렇게 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고전12:28~31)라고 하였고,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고전12:17)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유일한 사람이다 너의 개성과 달란트를 찾아라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행복은 직업 순도, 재력순도, 성취순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신바람이 난다는 겁니다. 제아무리 명품신발이라도 안 맞으면 발이 까지고 온몸이 아픕니다. 값싼 운동화라도 내 발에 맞아야 편하지요. 남이 볼 때 좀 하찮은 일 같아도 내가 편하고 좋으면 그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남의 인생을 살지 마세요. 또 대리인생도 살지 마세요. ‘나는 못했으니 내 자식만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식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억지 춘향은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보물찾기입니다. 이 보물 찾기 중에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내 달란트, 내 적성입니다. 그것 찾아 개발하고 집중할 때 그 분야에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씨를 심어도 토양이 맞으면 훨씬 잘 자라는 법, 남미에 가면 집채만 한 선인장이 있습니다. 토양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되는 게 없었습니까? 당신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이제 당신의 길, 당신의 달란트를 찾아 궤도를 수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30배, 60배, 100배 남겨 풍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천국을 침노하라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얹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약속을 확실히 믿고 기다린다. 그분이 속히 오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분 뜻을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다.
이 사실을 순간순간 확인함으로 방향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본향이 있음으로 해서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한다.
누가복음 16장은 소위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주인의 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던 청지기는 해고통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정리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 사람은 여전히 주인의 돈을 임의대로 사용한다. 직장에서 잘린 이후의 노후보장을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의 부채를 자기마음대로 탕감해줘버린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인은 그를 칭찬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라고 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 것이 아닌 물질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다. 그럼 내 것이 아닌 물질은 무엇일까? 육체가 있는 동안 내 손을 거쳐 가는 물질은 결국 내가 소유할 수 없으니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물질로 내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줄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 친구가 내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눅16:9).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다.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에서의 삶을 그것을 위해 투자한다. 우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딤후 6:17). 그것은 이 땅만 벗어나면 아무 상관도 없는 것들이요, 썩어 없어질 것들임을 알기 때문이다. 부요한 자건 가난한 자건 자기 소유의 많은 부분을 현금함으로 써 그것을 하늘나라로 송금한다.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하늘에서 보상받을 일을 위해 투자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썩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6:20~21).
이런 삶이 이 땅에서는 고난의 삶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분명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감히 택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결국 승리하게 하는 절대적인 능력이 된다.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마11:12)고 말한다.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복인 것이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 세상을 보는 창 ::

이기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후대에 가장 존경스런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의회 의원들은 신분이 낮은 제화공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몹시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저마다 링컨의 약점을 찾으려 혈투기에 혈안이 돼있었다.
링컨이 취임연설을 하기 위해 의회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나이 많은 한 의원이 링컨을 향해 빈정거리며 말했다.
“링컨, 당신의 아버지는 한때 내 구두를 만든 사람이었소. 물론 이곳에 있는 상당수 의원들의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었지. 그런 천한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당신밖에는 없을 것이요!”
의원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링컨의 반응에 주목했다. 그러나 링컨은 불쾌한 표정 대신 오히려 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취임연설 전에 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구두 예술가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즉시 말씀해주시시오. 제가 정성껏 수선해드리겠습니다.”
링컨의 말을 들은 의원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링컨은 절제의 성품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잠25:28)고 말씀한다. 즉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일 게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나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에 빠뜨린다. 우리에게 절제의 성품이 없다면 아마도 이런 위험을 앞에 놓고 달리는 인생과 같을 것이다.
“이기기게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고전9:25). 이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이정금 전도사

사랑과정이 그림다

모닥불과 같은 따스한 정과 사랑이 그리운 세상이 되었다
모든 자가 돈에 미쳐 뛰고 뛰는 모습을 보니
인간 본연의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잃은 지 오래인 것 같다
참으로 정과 사랑의 인간미가 그림다 또한!
시간은 편견이 없건만
인간은 편견으로 꽉 차서 본연의 선한 눈을 잃은 지 오래요
쫓고 쫓기며 세상 유혹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
돈, 명예, 쾌락만 향해 달리다 지쳐서 여유란 친구도 멀리 떠났고
정과 사랑이 싹틀 여유란 친구가 없으니
대화의 단절로 가정은 삭막한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그림다며
모래바람 속에 외치고 외친다
아~ 우리의 바램, 사랑과정이 그림구나
이제! 우리라도 사랑과정을 나누자

2021. 3. 4 밤
朋友



:: 소망의 언덕 ::

자원하는 자의 능력

노량진 교육관 봉사를 하면서 크게 깨닫는 바가 있다. 그것은 자원하는 자의 능력이었다.
첫 번째로 자원하는 자는 기쁨으로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이었다. 노량진 교육관에 오신 각기 달란트를 가지신 집사님, 장로님들, 교사와 학생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임하는 모습은 다른 공사장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작업을 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 때때로 고성아 울려 퍼지는 여타 현장과 달리 교육관 봉사 현장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다. 기도아 응답받은 기쁨, 봉사에 쓰임 받는 기쁨, 새 힘을 누리는 기쁨이 충만했다.
두 번째로 자원하는 자는 협력하여 맡은 일을 결국 이뤄낸다는 것이다. 보통 전문가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는 편이다. 더군다나 한평생 한 가지 업에만 집중하여 몸에 체화된 기술이나 공정순서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언을 하면 잘 듣지 않는다. 그런데 자원하는 자는 자신의 방법이나 자신의 포지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일’의 성사를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처우와 상관없이 협력할 줄 아는 능력을 발한다.
세 번째로 자원하는 자는 은혜로 일하는 자들이다. 교육관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분, 식사로 섬겨주시는 분, 필요한 기자재로 섬기는 분, 현장을 직접 찾고 응원해주시는 분, 뒤에서 전심으로 중보기도로 돕는 분들 모두 ‘더 드리지 못해 미안하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누군가가 뵈면 한결같이 알아 줌으로 오히려 송구하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해 안타깝다.’,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었다. 남들이 선뜻 드리기 쉽지 않은 물질을 드리고도 오히려 부족하다며 낮아지고, 감히 훗날도 내기 힘든 헌신을 하고도 티내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자원하는 자! 그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중심이 되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능력의 크리스천이다. 그분들이 있어 교회가 튼튼하다.

이현승 목사
coollee0817@naver.com

:: 빛이 되리라 ::

장성한 믿음을 소유합시다

어린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신앙은 보여줘야만 하고 일일이 손이 너무 많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스스로 알아서 모든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27절을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신앙은 봐야 믿고, 만져야 믿습니다. 그래서 꿈도, 환상도, 주의 음성도 자주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안 보면 못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가 어린 신앙이었습니 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게 하셨으며, 메추라기를 내려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추우면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홍해도 갈라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고... 어린 신앙 때입니다.

그러나 장성한니까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이제 장성한 신앙인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법궤를 댄 제사장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발을 요단강에 넣으니까 물이 멈추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천하는 장성한 신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가 먹고 싶었던 것 심어라. 그리고 수확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는 물질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 다. 장성한니까 부모도 쟁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릴 때는 산이 나무를 위해 존재하나, 장성한면 나무가 산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전 5:4).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시37:21).

사도행전 5장 1~10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의 종과 약속한 것을 잘라먹다가 죽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하고 약속한 것을 다 못 갚았으면 얼마만큼이라도 가지고 와서 탕감 받아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과의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세상 사람과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하겠습니까?

왜 안 갚는가?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탐심

을 잡아내야 내가 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탐심을 잡아내어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가룟 유다를 잡아내야 합니다. 겔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속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중성격자 가룟 유다를 잡아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아간을 잡아내야 합니다. 아간은 겔모양은 이스라엘 선민이요, 유다 민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겔모양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속에는 도적놈 탐심, 거짓말, 불순종하는 놈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놈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다 돌아 맞아 죽은 것입니다. 게하시의 겔은 충성된 일꾼인 것 같았지만, 속에는 탐심, 거짓말, 불순종을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잡아내야 나아만 장군이 걸린 문둥병에 걸려 죽지 않습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11~12).

2021년, 이대로는 안 됩니다. 달력을 새로 달았다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2021년이 희망차고 복된 한해가 될 것입니다.

평택예수중심교회 박종수 목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 생활 속의 잠언 ::

덥석 물은 대가

2018년도 부동산 상가분양 바람이 서울을 비롯한 경기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를 비롯해서 아무리 세상에 무심한 사람이라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당시 길을 지나가던 어여쁜 여사님의 소개로 어느 지역의 거대 상가분양 현장에 따라가게 되었고, ‘외상이라면 소도 잡는다.’라고 했던 옛말처럼 계약금 10%면 상가의 한 곳이 제 것이 된다는 달콤한 말에 덥석 오피스텔과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 상식도 없이 그렇게 시작했던 부동산 투자의 결말이 이제 현실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수익의 잔금을 치려야 하고 누군가에게 임대를 하거나 직접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 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었지만, 남은 건 알 수 없는 어지럼증과 두통을 동반한 지병입니다. 7년을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집을 비워 달라했습니다. 몇 달을 기도와 간구로 부동산 불이 일

어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평생을 살 아파트 한 칸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계획 없던 자금의 정리로 아파트를 팔고 잔금도 받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몇 억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만류가 기억나지만, 제 뜻대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매달리고 응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지만, 삶의 주인은 주님이 아닌 ‘나’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노라고 매일 기도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분은 어디로 가셨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환란처럼 다가올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묵묵히 손을 내미시면서 해결의 답을 찾아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훈련의 과정이며, 그 혹독한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날, 우리는 순전한 주님

의 자녀로 천국 입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하지만 어김없이 찾아오는 생각과 강력한 ‘나’의 의지는 주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려 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무거운 십자가를 내려두고 쉴 날이 찾아오리라 믿습니 다. 그날이 인생의 끝 날이 아니고 지금 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타래가 꼬인 듯한 인생의 숙제를 날마다 해결해주시고 날마다 손을 내미시며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분들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없는지 오늘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자유 집사
lovelyactor@naver.com

직분자에게도 최선을 다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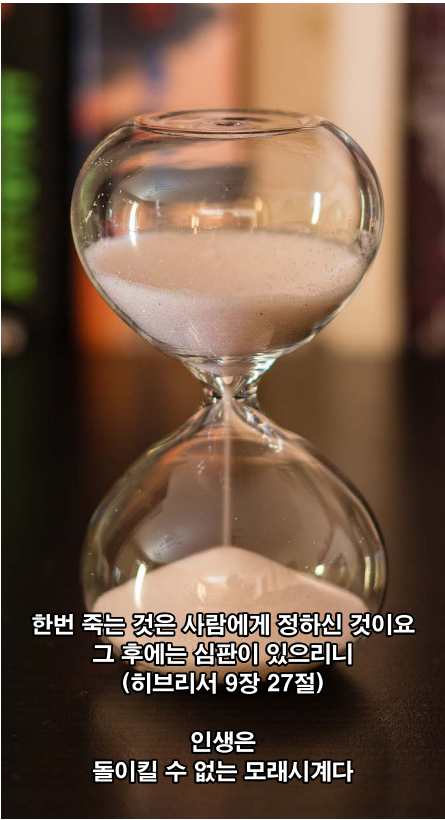
우리가 목회자에게 늘 순종하고 그분의 말을 잘 따르는 것처럼, 목회자가 임명한 직분자의 말에도 잘 따르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조장, 구역장, 교사, 팀장, 회장, 임원 등은 비록 성도이지만 목회자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임명받은 성도이다. 목회자가 아닌 같은 성도라고 그 말을 따르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일 수 없을 것이다.

알고 보면 교회는 사랑이 전제된 매서운 질서체계가 요구되는 곳이다. 이곳 역시 세상의 군대처럼 영적 전투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유사시에 지휘관이나 분대장 및 선임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 행동을 한다면 그 부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 리도 만무하다.

삼성전자 권오현 부사장이 쓴 저서 ‘초격차’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직원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절대 임원으로 발탁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겸손하지 않고 무례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가 이 조건을 들은 이유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조직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조직이 튼튼해야 한다. 그리고 질서정연해야 한다. 그래야 강력한 영적 군대가 될 수 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내 위에 세워진 직분자의 말에도 충성하고 잘 따라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조직, 단체, 개인이 될 수 있다. 때론 어려운 일이 될지라도 기도하고 노력하며 자신을 가다듬자. 그리고 함께 힘을 합쳐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성숙한 성도가 모두 되었으면 좋겠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모래시계다